

다향오리

‘콩자반 꿈의 학교’ 캠페인 진행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 알려



다향오리가 ‘콩자반 꿈의 학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다향오리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다향 착한 텃밭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덕풍중학교, 하남고등학교 등 경기 하남시 소재 청소년 16명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12월 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스티로폼 박스에 직접 모종을 심고 가꾸는 등 텃밭을 만들고 관리하는 활동을 체험한다.

다향오리는 콩자반 꿈의 학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텃밭 만들기에 필요한 스티로폼 박스, 흙, 비료, 씨앗, 모종 등 모든 물품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텃밭을 관리될 수 있도록 매주 방문하여 감독할 예정이다.

콩자반 꿈의 학교 참가 학생들이 재배한 채소는 김치로 만들어 지역사회 소외계층 가정에 기부 한다.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고 재배하는 모든 과정은 다향오리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